

월요광장

농촌은 사라지지 않는다



노 경 수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2014년 5월, 일본에서 발표된 '마스다 보고서'는 '향후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시정촌 명단을 공개해 '지방 소멸'에 관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 보고서의 영향으로 장래 지방 소멸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더 이상 투자하지 말자는 주장도 등장했고, 또 소멸로 거론된 지역은 어차피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두자는 '포기론'도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도 이 보고서의 분석 기법에 따라 소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개발했다.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로 나는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지방 소멸론'을 주장하는 '마스다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한 책이 오다기리 도쿠미(小田切徳美) 교수의 '농촌은 사라지지 않는다'이다. 마스다 보고서는 2040년에 20세부터 39세까지의 지자체 단위 여성 인구가 현재의 절반 이하가 된 경우 '소멸 가능성 도시'로 정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 '소멸'의 원인으로 젊은 여성의 유출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소멸'이라는 용어 사용이 적

절하지 않다는 점, 인구 1만 명 이하가 되면 소멸 가능성이 아닌 소멸이라고 단정할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족, 그리고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를 예상하지 못한 점 등으로 지방 소멸의 근거에 대해 반박했다.

일본의 농산촌에서 고도 경제성장기 이후에 사람, 토지, 마을이라는 세 가지 공동화(空村化)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취락이 소멸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도 농산촌 지역의 취락은 존속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취락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고령자의 '그곳에 계속 살아가려는 강한 의지'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마을주민,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지역 만들기'의 강력한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에서 지역 만들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농촌 지역으로 이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자리 부족, 빈집 찾기의 어려움, 마을의 폐쇄적인 성향이라는 '이주과정에서의 3대 문제'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공통적인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2060년까지 1억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2014년 12월 개최된 각료 회의에서 '마을, 사람, 일' 창생 종합비전과 종합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전략'을 토대로 추진 중인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과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에서 기대효과가 크다고 발표하였다.

첫째, '작은 거점 만들기'는 인구 과소화로 인해 생활 서비스 기능 및 커뮤니티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농산촌지역 등에 거점 마을을 형성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춰보면 몇 개의 마을 중 중심이 되는 1개의 거점

마을을 선정하고, 공공·상업편의시설을 집적해 농산촌 지역 등의 거주자들이 요구하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설치되는 주요 시설로는 버스 정류장, 우체국, 식료품 또는 일용품 판매점, 체육시설, 음식점, 초등학교 등이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4월부터 '작은 거점 만들기'를 시행 중인 시정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면 단위 과소 마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주고 있다.

둘째, 일본 총무성은 인구 감소로 인한 시정촌의 소멸 및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시정촌에 이주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2009년도에 '지역부흥협력대'를 제도화하였다. 지역부흥협력대의 유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부흥협력대 설치 요망 등을 계획하고, 직접 지역부흥협력대원을 모집해야 한다. 지역부흥협력력으로 선발된 청년대원은 보통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산촌지역 등에 거주하며 농림어업 지원, 주민의 생산활동 지원 등의 각종 지역 협력 활동에 종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들을 해당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1970년대 초반 내가 지냈던 해남의 농촌마을은 50호 이상이 거주하였는데, 지금은 주택건물이 일부 철거되고 30호 정도 남아있다. 실제 살고 있는 가구는 10여 호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마을사람들은 서울, 광주 등 대도시로 떠나갔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겠지'하며 허물어제가는 고향 마을을 지켜보면 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농촌은 사라지지 않는다'에서 희망을 품어본다.

수필의 향기

어느 부대 병장들 이야기



박 용 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야간 사격 중이었다. 최고참 이 병장이 깜깜한 밤에 사격 중이었다.

"야 짜사, 소변보냐? 조준 제대로 하라고! 군기가 빠졌네, 뉘진다."

그때 뒤에서 고성이 울렸다. 처음엔 짹짹 놀랐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목청껏 웃었다. 놀랍게도 갓 들어온 후임병이었다. 신병 유 이병은 언제나 툭툭 튀었다.

평소 나에게 대학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애원하던 병장 별명은 '대타'다. 그는 면회를 온 여자친구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알고, 면회소까지 따라온 선임이다. 둘은 나 몰래 오래도록 편지를 주고받은 결과 결혼에 성공했다. 우리 대타, 본인은 지명타자라고 우긴다.

부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은 정 병장이다. 그는 여자처럼 집합시켜 군기를 잡았다. 우리 늘 비상 출동하는 순간이면 정 병장 군장을 먼저 챙겨준 후, 각자 군장을 챙겨 출동했다.

그날 출동은 정 병장이 혁혁거리며 가장 늦게 도착했다. 덕분에 우리 연병장을 열 바퀴 그리고 정 병장은 혼자 열 바퀴를 더 돌았다. 우리 그가 어기적어기적 달리

는 모습을 보면서 킁킁거렸다. 그의 군장을 유 이병이 먼저 짊어지고 출동해버린 것이다. 이것도 후임 기수들이 미리 짠 작전이었다. 연애 전우가 그랬다. 속이 다 시원하다고...

제 군장을 찾지 못해 짹짹했던 정 병장은 지금은 창원 어디서 가게를 한다는 소식만 전했다.

외박 나갈 때면, 늘 짜장면을 사주던 조 병장도 오지 못했다. 총알도 피할 정도로 날렵한 특등 사수이자 그렇게 나라를 위해 소임을 다했던 그도, 취직안으로 작년 제 몸 하나 지키지 못하고 먼 하늘나라로 갔다.

울고 왔다가 울고 가는 곳이 군대라는 대하이라더니, 돌아보니 참 낭만 가득했던 그리운 순간, 웃픈 시절이었다. 어린애처럼 가기 싫어 영영 울고 갔다가, 헤어지기 싫어 부대원들을 붙잡고 영영 울며 왔던 그날이 잊히지 않는다.

제일 웃긴 유 병장은 이번 모임을 주도했다. 호방하고 시원시원했는데, 사업도 그리했는가 보다. 제법 넓은 산에 별장을 지어 초대했다. 덕분에 우리 부대원들은 조 병장을 이곳으로 모시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도 죽으면 이곳에 모두 묻히기로 했다.

우리 보급부대는 군대에서 필요한 모든 물자를 1중부터 10중으로 분류하여 3군에 재공했다. 그러니 재물점점이 자주 있었다. 대부분 눈치 빠른 병사들은 창고 밑에 비밀 창고를 파서 사용했다. 곧 부사관이나 장교도 모르게 물건을 감추었다가 부족하면 채우곤 했다. 군화 군복은 물론이려니와 총알에서 탱크까지 여간 실없는 일이었다. 그때 티득한 각자 노하우, 즉 자기 영업 비밀을 주고

받는 사이 웃음이 넘쳤고 그렇게 다시 군인이 되었다.

견배사도 그때처럼 '공수래' 하면 '공수거'이다. 입대할 때 맨몸으로 온 것처럼, 전역할 때도 부대 값진 물품을 잘 관리했다고 물려주고 가야 한다는 말이었다.

집합과 구타가 수시로 있었던 때였다. 하지만 학력이나 지역 차별은 없었다. 그렇게 우리 군에서 3년 동안 헛병아리가 틈살할 수밖이 되듯, 신병에서 선임자로 이방인에서 동료로 그리고 젊은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하였다.

남자들 군대 이야기는 축구 이야기만큼이나 지겹다고들 한다. 사실 난 영장이 나오지 않아 해병대를 지원했다. 그리고 해병대 입대 딱 1주일 전에 육군 입소 영장을 받았다. 좋아서 가는 곳도 아니어서 곧장 광주역에서 머리 깎고 입영열차를 탔다.

그렇게 내가 부임한 곳이 부평의 한 병참부대였다. 지금도 40여 년 전 그 전우들과 만난다. 그들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다. 그들 속에 내 모습, 내 친춘이 오롯이 스며있기 때문이다. 우리 내홍이나 대학, 종교나 이념이 달랐지만 언제나 국가와 민족 앞에서 하나였다. 계급장을 떼고 난 지금도 그 전우애는 여전하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곳이 군대일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보람찬 일을 선택하려면 주저 없이 군 복무를 짊어질 것이다.

학문과 취업으로 고민하는 가운데도 조국애를 잃지 않았던 사나이들의 우정과 웃음꽃이 활짝 핀 때였다.

거기 오래 머물러 있거라. 우리의 청춘, 3군지사 18 보급대. 그 웃음소리가 반백 년을 뚫고 남도까지 들려오는 것 같다.

社說

'중부세 개편안' 지자체 재정 압박해서야

정치권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중부세) 폐지를 포함한 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 여당에 선 중부세 폐지를 거론하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중부세 완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 중부세 개편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5년 도입된 중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17구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부유세다. 시가로 따지면 20억 원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되고 납부 대상자는 전체 국민의 2%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중부세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재산세가 있는데 추가로 부과한다는 이중과세 논란에다 부동산 경기 부양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부세 완화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폐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들이 재정 파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교부세는 지역간 재

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비율에 따라 지자체에 내주는 돈으로 중부세 세수 전액이 부동산교부세 재정으로 쓰인다. 지난해 부동산교부세 4조9601억 원 가운데 75.2%(3조7307억 원)가 수도권에서 걷힌 것을 보면 부동산교부세의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중부세를 대폭 감면하면서 광주시의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1787억 원) 대비 34%인 609억 원이 줄었다. 전남에서도 1년만에 부동산교부세가 2719억 원 줄어드는 등 22개 시군 모두 100억 원 이상씩 감소했다. 이렇다보니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물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중부세 감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부세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폐지를 포함해 개편을 할 경우 파급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수도권 부자들의 감세를 위해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돈을 끊어서야 되겠는가.

자살 위험·정서 위기 학생 제때 치료 시급

정서가 불안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학생들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의 관심 부족이나 치료 기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혹은 나 자신(?) 직할지도 모르다는 생각에 상당수 부모들이 진료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학생정서·행동검사 종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관공심 학생 2715명 중 치료를 위해 전문기관으로 연계된 학생은 87.8%(2385명)며, 전남지역에서는 관공심 학생 2552명 중 86.3%(2202명)만이 전담기구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같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치료에 급할 때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되지 못한 학생이 무려 700명이나 되는 실정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 관공심 분류 학생은 100명 중 4명 정도였으며, 이중 1-2명은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특히 1576명에 달하는 자살위험군 학생 중 8%에 달하는 120명은 전문기관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반영하듯 고의적 자해로 인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숨진 10대 이하는 2019년 17명, 2020년 20명, 2021년 22명, 2022년 26명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심리적 위기 학생들이 제 때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반대가 결정적 이유이다. 진료를 받으면 기록에 남아 피해를 볼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관련 약을 먹으면 영원히 복용해야 한다는 오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스트레스나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신속히 치료할수록 효과가 좋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완치율이 낮아지는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받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지금 당장 학교와 상의해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無等鼓

장편소설보다 분량이 많고 권(卷)마다 독립된 스토리를 갖춘 문학 장르를 일컬어 대하소설(大河小說)이라 한다. 프랑스에서 20세기 가장 인기 있는 문학 장르 가운데 하나는 대하소설이었다. 대표작으로 로맹 롤랑의 10권짜리 '장 크리스토프', 마르셀 프루스트의 7부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들 수 있다. 광활한 영토와 특수한 정치적·사회적 배경으로 러시아에서는 대하소설이 많이 창작됐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안나카레리나'를 비롯해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솔로호프의 '고요한 둔덕' 등이 대표작이다.

동 72번지에 살았던 작가는 44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당대 체험을 소설로 완결했다. 집필 기간만 꼬박 30년이 소요됐다 하니 완간하기까지의 지난한 세월이 어땠을지 가늠이 된다.

최 작가는 "5·18은 당시 신군부가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학살한 사건이다. 왜곡된 역사를 교정하고 복원하고 싶어 소설을 쓰게 됐다"고 배경을 말했다. 작가는 작품에 등장하는 11명의 주인공을 줄거리 방식보다 행적을 나'를 비롯해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솔로호프의 '고요한 둔덕' 등이 대표작이다.

대하소설

스마트폰 등 영상이 발달하면서 책을 읽는 독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수많은 인물들의 얽히고설킨 갈등을 다룬 대하소설을 읽는 이는 거의 없다. 올해 일흔이 넘은 최 작가는 "소설 쓰기는 의미 있는 구원의 시간으로 환원된다"고 했다. 어딘가에 부조리한 시대를 모티브 삼아 대하소설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작가가 분명 있을 것이다. 몇 년 후 오늘의 역사를 도도하면서도 웅장한 서사로 풀어낼 작가가 출현하기를 기대한다.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기 고

마을 자치와 도시계획 시민학교



이 민 철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 센터장

지난 2023년 9월 광주시의회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많은 논란 끝에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시계획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다. 그렇다면 조례 개정 이후 위원회는 제대로 공개되고 있을까? 아직까지는 아니다.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도시계획이 전문가들의 영역이라 시민들이 결정에 참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 심지어 시민이 선출한 대표인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해도 전문가를 중심의 회의 운영 때문에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 정도면 민주주의의 심각한 왜곡이다. 시민 일반의 눈높이에 맞게 회의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도시계획 시민학교를 열어 시민들이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시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광주는 편차는 있지만 97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계획을 세우고 의제를 만들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만든 의제에 주민참여예산을 연결해 실행을 돕는 자치

구도 있다. 광산구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21개 동에서 5년 중장기계획인 미래 발전 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 동별로 행정과 주민자치회, 학교 등 교육기관, 공공기관, 마을공동체와 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주민참여단이 구성되었다. 동별 협의위원회 성격의 모임이다. 주민참여단이 6화~10화 정도의 회의(워크숍)를 통해 동별 비전과 목표, 전략과 과제를 세우면 2025년부터 광산구가 과별 사업을 배치해 동 특성에 맞게 색깔 있는 발전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구정자의 권한을 동장에게 나누는 정책과 더불어 광산형 자치분권의 대표적 정책이다.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주민자치회의 마을계획 수립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미래 발전 계획 수립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특정한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독재를 막고 주민이 골고루 참여하는 회의 운영을 위해 촉진자(마을 퍼실리테이터)들이 진행을 돕고 있다. 마을계획을 세울 때 이런 형태의 주민참여 워크숍은 이제 거의 모든 동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동 미래 발전 계획은 마을 단위 도시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특정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견제·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을 정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체계적으로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도시 관리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전주 한옥마을의 지구단위계획이 있다.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층수를 1층으로 제한하고 지하층을 둘 수 없다. 한옥마을 내에는 프랜차이즈 카페나 빵집도 들어올 수 없다. 전통음식만 가능하고 포장구이 등 조리시 냄새가 심한 음식은 판매가 제한된다.

주민자치회의 마을계획, 동 미래 발전 계획, 어떤 과정을 거치든 결국 도시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안목이 중요하다. 자료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해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무엇을 자원으로 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려면 공부 필요하다. 우리 동네의 색깔과 매력을 정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도시들과 마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도 보고 현장도 가봐야 눈이 트인다. 광주 전체의 도시계획과 광산구의 도시계획을 알면 물론 도움이 많이 된다.

자치분권은 마을자치에서 시작한다. 주민들이 자기 동네를 계획하고 필요한 일을 스스로 해간다. 자치구는 마을자치를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한남동 주민자치회가 장수전을 살리겠다고 나섰다. 오염원을 정비하고 퇴적물을 준설하고 수량 확보가 필요한데 마을의 힘으로는 어렵다. 광산구와 광주시가 예산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

마을자치의 출발은 마을계획이다. 좋은 계획을 세우려면 참여자들의 견문이 넓어야 한다. 전문가들 도움도 필요하다. 주민들이 방향을 잡으면 그 분야 전문가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은 주민들의 권한이다. 도시계획 시민학교를 광주시 전체로도, 자치구에서도, 준비되면 마을에서도 진행하자고 제안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洸洸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 원 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정 치 부 220-0652 | 예 향 부 220-0692 | 기획 관리 국 227-9600 |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경 회 부 220-0663 | 사 진 부 220-0693 | 사 회 부 220-0664 | 체 육 부 220-0697 | 디 자 인 실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